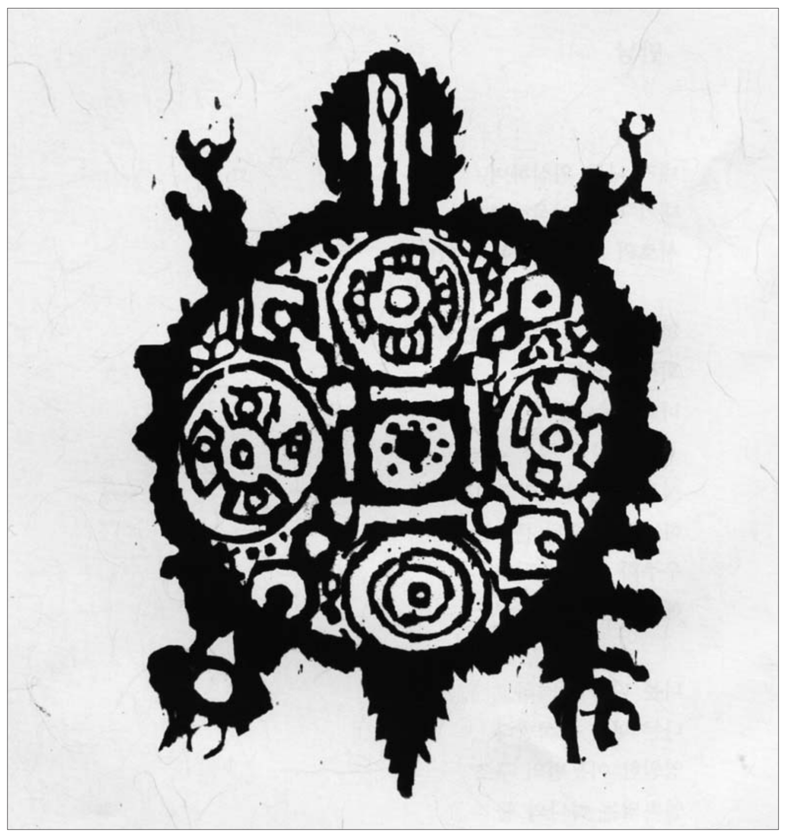
■ 새해를 여는 詩

남구, 2010년 초하루

이초우

- 경남 합천 출생.
- 월간 『현대시』로 등단.
- 한국 시인 협회, 부산작가회의 회원.
- 시집 『1818년 9월의 헤겔선생』외.
- 계간 『낯선시』편집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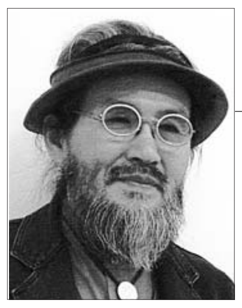
동해 바다를 용틀임하며 솟아오른 새해 새아침의 태양.
환호하는 우리들을 향해
황금색 천의天衣를 두른 태양의 신 아폴론이 나타나
둥둥둥 둥, 리라 연주를 하며 흥을 돋웁니다.
바이칼 호수 같은 이기대 바다, 붉게 주름 지으며 떠오르는 태양
어김없이 남쪽부터 노오랗게 데우며 떠오릅니다.
우리들의 남구는 남쪽이며 남향입니다.
리라 연주를 멈춘 아폴론이 중얼거리길,
'이렇게 살만한 고장인줄 미처 몰랐네'
출렁출렁, 용을 등에 업고 나라의 관문 지키는 오륙도가 있지요
부둣가에 쌓아 둔 수도 없이 많은 사각 보물들
나라의 동량들을 길러내는 상아탑이 다섯입니다.
2010년 새아침의 태양, 제 키를 자꾸만 키우며 두둥실 떠오릅니다.
리라 연주를 즐기는 아폴론은 음악의 신이기도 하지요.
21세기 행복의 척도는 문화입니다.
박물관, 문화회관, 신축 중인 예술회관, 어디 이 뿐입니까?
2010년은 육이오 동란 60년 해,
UN 평화문화특구의 새로운 깃발이 나부끼게 됩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그리운 뱃고동소리, 안방 같은
용호만의 유람선 부두에서 들려오고,
따뜻하게 남쪽을 데우던 해, 벌써 중천에 떠 있습니다.
중천에서 내려다보던 아폴론이
우리들의 남쪽을 아쉬워하며 기울어가질 못합니다.
재주 많은 아폴론 신은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구민들의 안녕을 꼭 빌고는
서쪽으로 발걸음 겨우 옮겨갑니다.



신년축화

장생(長生·Ten long-lived things) wood-cut

거북이는 해, 달, 물, 돌, 구름, 소나무, 영지, 학, 사슴과 함께 십장생 중에 들어가는 서민의 염원이 담긴 중요한 영물이다. 우리 선조들은 거북을 즐겨 그리며 생과 삶의 갈림길에서 염원을 추구했다. 무병을 기원하며 현재도 거북의 추억을 기리며 거북을 그리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 일 것이다. 2010년 새해를 맞아 거북을 그리든 옛 화공들의 간절한 염원이 현실화 되어 모두가 무병의 한해가 되길 빈다.



俆雪 서상환

- 서양화가·철학박사
- 부산문화재단 자문위원
- 한국성문화회 부회장
- 전 남구미술회 회장
- 영설화원원장

'백호의 해' 새해 소망을 말하다

"가족 건강이 최우선이죠"

올해의 소망은 무엇 보다 가족의 건강입니다. 나의 영원한 후원자인 남편 술 적게 먹고, 금연 결심 굳게 지켜나가길 바라며 돈과 칼의 기운이 더욱 세다는 백호 해에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별 탈없이 생활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명해(용호1동)

아들 내외 직장생활 잘하길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나로서는 그저 아들 내외가 지금 하던 대로만 직장생활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다 공무원인데 나라가 전부 힘들다고 하니까 아무 탈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부자(대연5동)

독립심 강한 아이되길

첫애가 이제 6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2학년에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자기의 일을 잘 알아서 할 나이가 된 만큼 새해엔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토 유미코(대연1동)

"태권도 3품 합격할래요"

2010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5학년이 됩니다. 새해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더욱 더 공부 열심히 하는 한해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태권도 3품에 도전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꼭 3품에 합격하여 가족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조원열(용호초교·4)

2010 새로운 희망의 불 지피다

2010년 새해가 밝았다. 계속되는 경제불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역경과 난관을 딛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호랑이 해를 맞아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희망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안전운행이 곧 나의 행복

10년째 교통봉사에 나서고 있는 남부모범운전자회 주상건 고문

주상건씨는 아침 일찍부터 문현4동 새마을금고 앞을 찾는다. 남부모범운전자회 고문인 그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출근시간대 교통정리 봉사를 위해서다. 여든의 나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휴무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교차로 차량꼬리 끊기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10년 넘게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날에는 집에서 쉬라는 가족과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상건 고문은 운동을 핑계로 봉사대열에 빠지질 않는다.

"물론 추운 날씨에 나오려면 귀찮고 엄두가 안날 때도 있지만 사람이 한번 쳐지기 시작하면 일어서지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해서 운동 삼아 교통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침 7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봉사를 하다보면 속상하고 괘씸한 일도 다반사다.

주 고문은 "당신이 뭔데 오라가라 하느냐"며 따지기도 하고 쌍욕을 해대며 시비를 걸어오는 운전자를 대할 때면 맘이 상하기도 하지만 모범운전자로서의 명예와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하지만 "수고 많으십니다"라며 밝게 웃어주는 운전자들을 바라볼 때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주 고문은 운전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다.

"교통정체 등으로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나부터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봉사에 나서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모범운전자회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남부모범운전자회의 정신적 지주라는 칭송을 듣고 있는 주 고문의 새해 소망은 가족 건강과 함께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다. 이를 위해 그는 올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해 봉사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주영란 기자

삶의 기쁨 도전과 꿈에서 찾다

최고령 보일러 자격증 취득 용호1동 문경애 할머니

고희를 넘긴 할머니가 가스보일러 자격증을 획득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용호 1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문경애(73세)할머니.

할머니는 지난 2007년 12월에 목욕탕을 인수하고 낡은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보일러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천안 아산 양성기관에서 며칠동안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까지의 수업시간. 류마치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할머니는 몸도 몸이지만 아무리 신경을 곤두세워도 귀 밖에서 맴맴 거리던 수업내용이 3일째 되는 날부터 조금씩 귀에 들어왔다. 공부하는 동안 최고령자인 할머니는 당연히 화제의 중심이었다. 젊은이가 5시간 공부하면 할머니는 20시간을 더 하는 지독함과 오기로 버텼다. 밤새워 공부한 내용도 아침이면 하얗게 잊혀졌다. 시험 치는 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컴퓨터용 수성팬으로 OMR 카드에 답을 옮기는 것도 처음 해 본 일이라 생소했다. 2번씩이나 떨어져서 속상했지만, 3번째 도전에서 82점으로 당당히 자격증을 취득했다.

문경애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아들만 3형제를 두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 새벽이면 아이들을 깨워 논에 가서 풀을 뜯게 하고 학교에 보냈다. 용돈이 아니라 품삯으로 돈을 주었다. 벼농사는 일손이 많이 가는 농사다. 내자식이니까 남들보다 더 일을 해야 하고 남자는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의 지론이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공부해야 되겠다'고 했단다. 힘든 고난도 많았지만 3형제가 훌륭히 장성해 의사, 대기업 근무, 개인사업에 진출해 있다.

주위에서는 그 나이에 가만히 앉아서 자식 효도 받고 살지 무슨 고생이냐며 말들을 한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단호하다. 일을 하면 그 일에 책임감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자기의 밥값은 벌 수 있다는 즐거움. 그 기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한다.

최정순 기자

붕어빵이 저의 미래입니다

지체장애 딛고 생업에 전념 대연1동 박동열씨

장애의 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알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대연1동에 살고 있는 박동열(54)씨는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하지만 그는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해 현재 붕어빵을 팔며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한때 현재의 평화공원 자리에서 번듯한 타이어집을 운영했던 박동열씨는 지난 92년 서면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1년 여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야만 했다.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지만 가족과 본인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후 집에서 치료를 받던 중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과 기우는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다. 이때가 95년 겨울. 처음에는 제일은행 앞에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대연농협 맞은편 골목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렇게 15년 넘게 붕어빵장사를 하다보니 단골도 많이 생겼다. 어두움이 깔리는 저녁시간대면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박 사장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손님들 덕분에 좁은 골목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저 없이 얘기한다. 손님들은 거동이 불편한 박 사장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손수 집게로 붕어빵을 담고 돈을 바구니에 넣어준다. 팔이 말을 듣지 않아 붕어빵이 타기 십상이지만 손님들은 개의치 않고 가져간다.

손님들의 배려를 아는 박 사장은 조금이라도 탄 붕어빵을 가져가지 말라고 야단(?)치며 덤으로 하나 더 가져가라며 화답하는 모습이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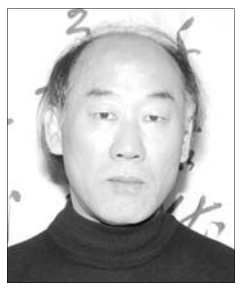
박 사장은 붕어빵장사 덕에 두 형제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다. 현재 큰 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작은 아들은 대학생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몸이 허락하는 한 자신의 미래인 붕어빵을 굽겠다는 박동열씨의 새해소망은 가정 화목과 자신의 건강이다.

문민희 기자

신년휘호

호소풍렬(虎嘯風洌)
－범이 포효하면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분다.



벽암 윤종철 선생은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며 부산서예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서예대전과 전국서도민전, 청남휘호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대연5동에서 벽암서예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서예인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민식의 진실+삶 이야기

길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걸고 오락하는 장면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진은 우리 삶의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다. 좋다고 느껴지면 어떤 장소든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셔터를 누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옛날과 달리 오늘날은 초상권 때문에 촬영의 자유가 없어졌다. 훌륭한 순간 포착만이 진가가 존재한다.

휴머니스트 사진작가·대연1동